

01 교회소식

친히 느끼고 체험한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권능을 펼쳐며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줌으로 더욱 깨어 신부단장에 힘쓰도록 도와준 '2017 만민 하계수련회'.

02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영광의 열매로 나올 것을 간절히 고대하신다.

03 간증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2013~2016년 만민 하계수련회 간증의 주인공들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았다.

04 특집

"올해 역시 특별했습니다!"

해외 37개국에서 참석한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은혜로 참석자들에게 행복을 더해 주셨다.

만민뉴스

제801호 2017년 8월 1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만민이 하나 되다!

해외 37개국에서 참석한 '2017 만민 하계수련회'



GCN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해외 37개국에서 총회장과 주의 종 및 성도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만민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4일간,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권능'(요 14:12)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태국어, 힌디어, 타밀어, 파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13개 언어로 동시통역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참석한 농아 성도들을 위해 9개 언어(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라트비아, 덴마크, 파로제도,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의 수화로 진행되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기온이 조절되는 놀라운 기사(奇事)

수련회 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던 제5호 태풍 노루가 수련회 첫날인 8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되었다. 이에 8월 3일(목)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었고, 그 즉시 당초 예상되었던 진로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되었다. 4일(금), 한 차례 더 기도하여 기도하기 전보다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에서 100 km 더 멀어졌고, 세력도 약화되었다.

또한 이 목사가 8월 6일(주일), 이번 수련회는 25~26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수련회 기간 시종 바람과 비, 구름 등을 통해 25~26도의 기온으로 조절되는 놀라운 기사(奇事)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수련회가 진행되는 전북 무주군은 제외됐으며, 일정이 마쳐진 10일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보며 성도들은 고센 땅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

폭발적 권능으로 온갖 질병이 치료되고 영의 세계가 밝히 드러난 집회

첫째 날 교육 시,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는 제목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며, 자녀들이 온 영을 이뤄 가장 큰 영광 중에 거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으며 체험케 하시는 것은 신속히 하나님 마음을 닮은 온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을 전했다.

이어진 은사집회에서는 회개하는 찬양과 기도 후 이재록 목사가 참석자들을 비롯하여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사람의 근본 마음이 변화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 또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각종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도록, 불치·난치병과 갖가지 암, 각종 정신질환의 치유를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 목사의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로 역사되는 권능의 기도를 통해 귀신의 세력에게 고통받던 이들이 해방되었다. 이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시험난 속에 살아가게 하며, 자살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이끄는지 밝히 깨달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분쇄골절, 골수염, 안면마비, 하지부종,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돌발성 난청 등 기도받은 수많은 성도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으며, 농아 성도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 년과 또 천 년, 다시 천 년... 이렇게 6천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아는 참된 아들, 딸이 나오리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낼 때까지 모든 여파를 이겨내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큰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랑스럽게 지으신 이 땅을 심판해야 할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홍수의 빗줄기만큼이나 하나님의 가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셔야 했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것도 보셔야 했지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도 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해서 이런 일들을 쉽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셨기에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동을 느끼십니다. 더구나 선 자체이시기에 이런 감정들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시지요. 소중하게 창조한 세상이 죄로 물들고 인생들이 악을 발하는 것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계획하신 경작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반드시 참 자녀들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지나간 세월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시다가 포기하셨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참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권능을 보았습니다. 열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온 것도 보았지요.

이런 체험들을 무수히 했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들을 버리고자 하셨지요.

하지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히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심히 강박해진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보다 차라리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 처음부터 율법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순종을 잘했을 터이니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는데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완전히 고칠 방법도 없고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피 완치도 안 되는데 이런 아이를 키우느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다시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하고 아픈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가산을 탕진한다 해도 끝까지 아들을 고쳐주려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어찌하든 버리지 않고 살려서 변화시키고자 하시지요. 의와 틀이 강하고 불순종을 많이 낳아 주변에서 볼 때 답답하고 변화가 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구원은 물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광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도 받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들어간 낙원(눅 23:43)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계 21:10~11)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시켜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고전 15:41). 믿음의 분량에 따라(롬 12:3) 천국의 처소와 영광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며 어찌하든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죄악을 버리고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민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뜻대로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9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대자연 속에 펼쳐지는 은혜와 감동의 축제 “올해도 과연 응답과 축복이 넘쳤어요!”

국내외 만민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민 하계수련회, 특별히 지난 2013~2016년 수련회 시 치료받아 영광 돌린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 매년 축복과 영광의 수련회로 풍성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3

TESTIMONY



“농아로 태어난 딸의 귀가 열려 주 안에서 밝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긴겔하젤브라 집사 (33세,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2013년 4월, 생후 12개월 된 제 외동딸 스킨라는 농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딸까지 농아로 태어났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만민 하계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해 7월 29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여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평소 조용하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행동이 부산했습니다. 8월 2일(금)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에는 손가락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3일 뒤인 8월 5일,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간에서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딸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한걸음에 단에 올라가 눈물로 간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할렐루야!



어느덧 다섯 살이 된 스킨라는 주 안에서 밝고 똑똑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여 왼쪽 귀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들리게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농아 성도님도 귀가 열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17년 현재 모습

2014

TESTIMONY



“올해에도 선물 보따리를 받으러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비엔 후옹 릴루 성도 (46세, 일드프랑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GCN방송(www.gcntv.org)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단 한 번의 악수로 중이염과 습진, 치주염을 치료받은 저는 8월에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극심한 하지정맥류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지요. 5년 동안 다리에 압박붕대를 감고 다녀야 했고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때도 있었으며, 사람들이 제 다리를 볼까봐 차미를 입지 못할 정도였는데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 만민 하계수련회 때에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두피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치유되었습니다. 9개월간 두피가 몹시 가려웠으며 온통 부스럼으로 하얗게 덮여 있고 군데군데 피와 딱지가 생겨 고통을 받았는데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프랑스에서 한국까지의 거리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주님과 목자님의 사랑이 더 마음 깊이 느껴지는 기쁘고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 현재 모습

2015

TESTIMONY



“자폐증상을 치료받은 아들,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김준옥 집사 (41세, 2대대 12교구)

제 아들은 생후 20개월에 자폐증으로 의심되는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부모의 죄로 인한 것으로 부모가 성결되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을 핑계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요.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회개하며, 예배 때마다 아들을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눈을 마주 보기 어려웠던 아들이 눈을 맞추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제가 신앙을 회복하며 주의 일에 충성해 가는 만큼 아들 민성이의 상태도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취학 전 자폐증상 검사에서 언어 표현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수학적 능력과 공간지각 능력에서는 일반 아이들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의사들조차 매우 놀라웠지요.



2015년 8월에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모든 분야가 더욱 호전되어 단에 올라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성이는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는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창조의 권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 현재 모습

2016

TESTIMONY



“왼쪽 눈의 망막 혈관 파열을 치료받으며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마창호 집사 (55세, 중국 1교구)

먼지가 많고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저는 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 중간에 검은 줄이 생겨 시야의 2/3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망막 혈관 파열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지만, 저는 수술이 잘못되면 시력을 아예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눈의 초점도 잘 맞지 않아 생활에 불편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2016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첫날 은사집회 시 회개찬양을 하는데 세상을 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떠올라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눈물을 닦기 위해 눈을 뜬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요. 왼쪽 눈에 까만 줄이 없어져 시야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당시 좌우 0.3, 1.5이었던 시력이 지금은 1.5, 1.5로 좋아져 무엇을 봐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저는 올해 수련회에서도 크고 놀라우신 목자의 권능을 목도하며 제 부족함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변화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민의 양 떼로서 더욱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17년 현재 모습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으로 몸과 마음이 새롭게 정화된 '체육대회'

만민 하계수련회 둘째 날 체육대회는 1대대팀(중국교구·해외교구 포함), 2대대팀, 3대대팀, 지교회팀(국내외 지교회 및 해외 성도)이 주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남녀줄다리기, 남녀애드벌룬 공굴리기, 남녀배드민턴, 남녀100m달리기, 남자배구, 남자미니축구, 남녀오래달리기, 남자씨름, 남녀팔씨름, 남녀이어달리기 10개 종목에서

총 24개 금메달을 놓고 자웅을 겨뤘다.

올해에는 지교회팀이 금메달 12개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응원상은 3대대팀에게 돌아갔다. 특히 남녀 MVP 상의 영광은 지교회팀 소속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케투페이 제이콥 성도와 무원두와 케터딘 성도에게 주어졌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한낮에 치른 행사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시고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계속 불어주셔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까지 정화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또한 성도들이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승리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축하해 주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과 화평 속에 경기를 치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 '캠프파이어'

셋째 날 캠프파이어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인도로 (부인도사: 도유리 전도사, 김정은 자매) 주제 'praise & worship'(부제: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 떼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이 행사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오직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목자의 희생과 사랑, 그 열매로 보석같이 빛나는 영혼들로 변화되어 목자와 함께 목자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콘셉트를 담았다.

무대는 목자의 성 밖과 안으로 구분하여 세상과 목자의 공간, 어둠과 빛을 의미하여 꾸몄으며, 키네시스(kinesis) 시스템으로 메인 영상을 분리 운영하여 구원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를 나타냈다.

특별히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 세계를 덮어가는 만민의 비전을 표현한 샌드아트(Sand Art), 만민을 통해 펼쳐지는 목자의 권능을 화려하게 표현한 불꽃쇼, 예능위원회의 연합공연으로 펼쳐진 퍼포먼스 '전 세계 만민을' 등이 '응답받는 만민'을 표현해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었다.

한편, 이 목사는 앞서 캠프파이어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해 많은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축복받을 것임을 말했다. 또한 이날, 갖가지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었다. 성도들은 인도자와 함께 만민찬양 '목자의 희생-눈물', '기다림' 등과 '산곡에 백합화 성도들이여', 'JESUS' 등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올려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넘쳤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